[별첨6]

사 업 보 고 서

(2023년도)

1-1. 사 업 개 황

□ 사업개요

2023년 제주감귤농협은 「지속가능한 100년 제주감귤농협 구현」을 경영목표로 하여 「유통대변화와 디지털 혁신으로 사업 경쟁력 강화」「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협동조합 가치 확산」「농협 정체성 제고를 위한 조합원 실익지원 확대」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리고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원자재 가격상승 등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조합원 소득 증대 및 고객만족 경영 실현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농협 구현!』 비전(VISION 2025) 달성을 위하여 노력한 한 해였다.

사업부분별 세부 경영방침으로는 교육지원사업부분은 '체계적인 GAP 생산 인증교육, 공선출하회 회원교육 등을 통한 고품질감귤 생산·출하지도 강화' '품종별·지역별·시기별 맞춤형 현장교육 강화' '브랜드감귤 생산기술 확대 지도를 통한 감귤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판매사업부분은 '산지유통센터 역할 강화를 통한 산지유통이 주도하는 유통체제 구축' '과실수급안정 사업 확대 추진으로 감귤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 도모', 구매사업부분은 '불량 농자재의 유통근절 및 우수농자재의 공급 확대' '농업인 니즈 반영 다양한 비종(맞춤형 비료 등) 공급 확대' '농업인 선호도, 영농여건별 맞춤형 농자재 발굴 및 품목 확대', 신용사업부분은 '예수금 확대 추진 및 저원가성 예금 중점 추진을 통한 안정적 수익 기반 확보' '정책보험(농작물) 가입확대를 통한 농업인 실익 제고' '디지털금융 확대를 통한 사업경쟁력 강화' '여신 건전성 중점관리 및 건전결산 강화', 경영관리부분은 'ESG경영으로 지속가능한 농협 구현' '질적 성장 및 경영 내실화로 안정적인 경영기반 구축'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저비용·고효율 경영시스템 구축'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경영으로 신뢰성 제고' 등으로 하여 조합의 경쟁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였다.

제주감귤농협의 사업부문별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지원사업

2023년 교육지원사업부분에서는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구축 및 전문 농업인 양성을 목표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와 공동으로 브랜드감귤대학을 운영하여 현장 맞춤형 교육, 농촌진흥청 외 유관기관 강사진을 통한 전문적인 이론 등을 중심으로 감귤 전문 지도사를 매년 양성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51명(제18기)이 수료하여 총 878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권익향상과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여성농업인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전문적인 이론 및 현장교육, 체험활동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진행하였으며, 2023년에는 48명(제3기)이 수료하여 현재까지 총 137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그리고 사무소별 협동조직 및 조합원,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영농교육을 총 62회(1~5차) 실시하여 1,442명이 교육에 참석하였으며, 감귤농업인 영농상담 및 과원 현장 방문을 통한 생산지도 등도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농업 경영비 및 가계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조합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2023년 89명의 조합원 자녀 대학생을 추천받아 8천9백만원의 학자금을 전달하였고 현재까지 누적 총 12억1천8백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하였다. 또한 출산장려 및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5명의 조합원에게 1백3십만원의 출생 축하금을 전달하였고 현재까지 총 131명에게 4천3백7십만원이 지원되었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우량품종 육성·보급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모수원·육묘장 운영을 통해 조합원 및 농업인들에게 우수 묘목을 공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39,708本의 우수 묘목을 공급하였고 현재까지 누적 1,755,932本을 공급하여 농업인들이 감귤농업을 시작할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하였다.

□ 판매사업

2023년 판매사업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소비둔화 속에서 노지감귤 전년대비 4.6% 성장, 하우스감귤 전년대비 △2.8% 역조, 비가림감귤 전년대비 9.4% 성장, 만감류 전년대비 △15.5% 역조, 기타품목 전년대비 4.2% 성장에 따라 총 판매사업 실적 2,316억원으로 계획대비 90.2% 달성, 전년대비 66억원 감소하여 △2.7% 역조하였다. 이는 제주감귤농협 63년 동안에 두번째로 높은 실적이며, 3년 연속 전국농협 중 농산물 판매사업 실적 1위를 계속하여 달성하고 있다. 또한, 우리농협 공동브랜드인 “불로초”는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포럼이 주관하여 소비자를 통해 선정하는 『2024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대상』 감귤부문에서 14년 연속 대상에 선정되어 퍼스트클래스를

달성함으로써 대한민국 감귤부분 최고의 명품브랜드로서 진가를 다시 한 번 공인받았다. 이는 11개의 품목으로 구성된 공선회원제를 중심으로 변화되는 농산물 유통환경과 시장 요구 변화에 대응한 결과 이다.

이용사업 실적은 88억원으로 계획대비 105.8% 달성, 전년대비 11.6% 성장하였다. 이는 감귤가격이 전반적인 상승에 따른 소포장 물량 증가로 인하여 실적이 증가하였다. 제주감귤농협은 2019년부터 정부 고령자 고용확대 정책 호응의 일환으로 노인인력개발원과의 MOU체결을 통하여 시니어형 일자리 창출 노력하여왔고, 2023년에는 보건복지부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확대 추진하여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사회 발전에 적극 노력하였다.

□ 구매사업

2023년 구매사업은 감귤농가의 실익증진을 목표로 지속적인 영농정보 안내 및 시기별 영농교육을 실시한 결과 농약사업은 254억원으로 계획대비 98.9% 달성, 전년대비 11.5% 성장하여 제주감귤농협 설립 이래 최고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비료사업은 유기질(퇴비)비료 지원 사업 등 농업보조금의 축소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비료 수요 감소로 계획대비 87.2% 달성, 전년대비 △13.0% 역조하였다. 자재사업은 감귤 출하 물량 감소에 따른 출하용 감귤상자 취급 감소로 인하여 계획대비 85.4% 달성, 전년대비 676백만원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5.4% 역조하였다.

하나로마트에서는 2023년 한해 연중 통합전단행사(매월 2회)를 실시하여 전단지 제작, 배포 및 하나로마트 공식 밴드를 운영하여 제주감귤농협 하나로마트를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하였다. 지난해에 이어 매주 목요일‘한우 잡는 날’행사를 실시하여 관내에서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 하였으나, 계획 대비 77.7% 달성, 전년대비 △5.3% 역조하였다. 관내 마트와의 경쟁 심화, 신규 거래처 발굴 등은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 신용사업

2023년 신용사업은 전세계 전반적인 긴축정책 등으로 인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기조 유지로 자금 조달비용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이자비용 상승 등으로 인한 연체채권 증가 등 전반적인 신용리스크가 확대된 한해였다. 신용사업 주요 실적으로는 예수금 잔액 7,038억원으로 계획대비 92.2%달성, 전년대비 △5.0% 역조되었다. 예수금 평잔은

7,169억원으로 사업계획대비 97.3% 달성, 전년대비 2.4% 성장하였다. 상호금융대출금 잔액은 6,632억원으로 계획대비 91.5% 달성, 전년대비 △1.97% 역조되었다. 상호금융 대출금 평잔은 6,672억원으로 계획대비 94.9% 달성, 전년대비 △0.3% 역조되었다. 어려운 국내의 농업경제상황에서 농업인에게 경제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책성 대출금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 농어촌진흥기금은 대출잔액 1,112억원으로 도내 농축협 중 점유비 1위를 차지하였고, 조합원의 영농자금 대출(함께하는 100년 농촌 저금리대출)을 557좌 177억원을 추진하여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등 농업인의 금융비용 절감 및 저금리 영농자금 지원으로 영농기반 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다.

보험료는 157억원으로 사업계획대비 78.5% 달성, 전년대비 △9.56% 역조되었다. 농업인의 자연재해 및 농작물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감귤 등)에 대해 본인 부담료의 20%를 조합에서 지원하였으며, 가입 추진한 3,726건에 대하여 2억3천8백만원의 보험료를 조합부담금으로 지원함으로써 보험 가입에 따른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 할 수 있었다.

□ 경영관리

2023년 경영관리부문을 보면 우리농협 매출총익은 409억원으로 계획대비 93.4% 달성, 전년대비 △9.6% 감소하였고, 판매비와관리비는 350억원으로 계획대비 91.0% 달성, 전년대비 1.7% 증가하였다. 영업손익은 59억원으로 계획대비 110.6% 달성, 전년대비 △45.5% 감소하였고, 당기순이익은 15억원으로 계획대비 41.8% 달성, 전년대비 △72.4% 감소하였다. 이는 지속적인 경기침체의 장기화 및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 환경 속에서 연체채권 증가에 따른 대손충당금 32.7억원 적립, 예대마진율 감소로 인한 신용사업 부분 매출총이익 감소 등 경영면에서는 어렵고도 변수가 많은 한해였다.

2023년 결산에 있어 충당금 부분인 신용대손충당금, 일반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연차충당금은 법정 비율 이상 적립하였고, 조합경영기반인 재무구조의 건전화와 지속 경영기반 강화를 위하여 농협법상 규정되어 있는 이익잉여금의 50%이상(법정적립금 10%, 사업준비금 20%, 차기이월금 20% 이상)을 내부 적립하였다. 또한 조합원의 적극적인 출자증대 참여로 납입출자금이 14억원 증가하였으며,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자본 건전성 확보를 위한 충당금의 확실한 적립으로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앞으로도 제주감귤농협은 어떠한 변화와 역경에도 극복해 온 만큼 임직원 모두가 혼연일체 되어‘변화와 혁신’의 동력으로 미래를 대비해 나갈 것이며, 마음이 뜻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진다는 심상사성(心想事成)의 자세로 강한 열망과 의지를 갖고 노력하여 반드시 경영목표를 달성할 것이며, 대한민국 최고의 품목농협으로서 조합원이 대우받고 조합원이 존경받는 100년 농협 구현을 위해 전 임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